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바울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그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총만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깊은 열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지금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도들은 깊은 말씀과 기도의 연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의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후방의 군수기와 같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며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비판보다 중보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부서,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조용히 입술로 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지난 주일설교 중에서-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익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시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도		다 같이
경배찬송	1장	다 같이
성서교독	52번 시119편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38장	다 같이
기도		1부 윤태영전도사 2부 박현규 집사
성경봉독	골로새서1:13-14	인 도 자
찬 양	빛으소서	성 가 대
설 교	복음의 역사(役事)	박근상목사
기도		인 도 자
찬 송	252장	다 같이
헌금봉헌	헌금함에	다 같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같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 금주의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1:13-14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천영순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에베소서교회론(65) 6:15-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1)
찬송/ 498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로마서 강해**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 이번 주는 로마서를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삼일예배에 교회론 강해가 계속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1)
- 주보에 자료가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2)’
- 오늘은 ‘온세대연합예배’입니다.
- 오늘은 ‘소그룹의 날’입니다.
- 15(월)-17(수) 교단총회가 있습니다.(평창)
- 요한계시록 강해 ‘비밀’ 독후감을 받습니다.(사무실)
28일 주일까지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오종화 이길연 2층 고지영 최영심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윤태영 박현규	김광수 유혜환/결혼감사
다음주	1층 김종기 오종수 2층 고지영 최영심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이흥룡 이흥재	이창희 양세영/결혼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09,19) 8구역(천영애)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09,26) 9구역(유은희)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롬 3장 23절 제 목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다	활동 1.9월 암송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2.오늘의 활동은 죄를 찾아드립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예배] 온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9월 암송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입니다. 2.전도할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3.새소식반 놀러 오세요. 토요일 오후 3시 4층 유아부실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예배] 온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오늘 온세대연합예배로 중고등부 여는 찬양으로 섬깁니다. 2.9월 암송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3.9월 21(주) 예배인도는 박해진자매, ppt는 백가은 자매, 대표기도는 백성준형제입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예배] 온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오늘 온세대연합예배에 중고등부 함께 합니다 2.9월21일(주일) 대표기도는 박주원형제입니다. 3.9월 21일(주일) '게이트웨이' 나눔합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 9: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후 2시



기독교 기본생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가?

사람이 자기의 기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인간이 우연한 존재하는 기능적인 일부일 뿐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믿는 것과는 전혀 전혀 다른 기준에 따라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에서 부활의 중요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변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부활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보다 위에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이다.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자신은 완전히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후에 다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전15:14)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인간에게서 나온 책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의 기원이 인간적인 것이라면 성경은 인간이 지은 뛰어난 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신적 기원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성경은 이 지상에서 일한 권위를 가진 책이 된다.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다른 공격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성경의 권위를 세우지 못한다면 성경은 단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중에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성경이 신(神)적인 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기원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신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성경의 권위를 증명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권위를 가진 성경을 통하여 공격들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고대 역사 속의 존재하는 그 어떤 문헌보다 더 강력하게 사본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성경이 기록된 이래 성경이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과 몇 세기 후의 사본을 비교한 학자들이 증명한 것이다. 오늘날의 사본은 성경을 처음 기록된 원본과 일치한다. 성경은 기록된 사건들의 목격자이거나 목격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 사람, 장소, 관습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고고학은 신약 성경의 정확성을 증언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과 지명은 고고학적 연구를 통하여 성경의 신뢰성을 확증해 주고 있다.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격심한 고통을 일으켰던 재판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사실임을 입증해 준다.

이제는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비평을 거둬들여만 한다. 성경은 우연이나 상식으로는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사건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BC 530년 이전에 기록된)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 미디안과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 성전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안티오쿠스 4세 에 피파네스 아래에서 유대인이 큰 박해와 고통을 당하게 될 일과 안티오쿠스 4세의 때 이른 죽음, 유다 마카비우스 아래에서 유대인이 자유를 얻는 일(BC165년) 등을 정확히 예언한다. 성경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언들 전체가 우연이나 탁월한 추측으로 성취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

죽음 이후를 설명할 수 있는가?

무신론자는 죽음이 존재의 끝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인간이 단순히 몸과 뇌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무신론자는 영혼과 같은 형이상학적 실재를 거부하지만 인간에게 물질을 초월하여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비물질적 부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다.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뇌의 기능과 동일하지 않다. "고통의 느낌, 소리의 경험, 색에 대한 인식 등 인간의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경험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과는 다르다. 만약 세계가 물질로만 구성되었다면 인간의 의식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측면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세계에는 물질 이상의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인간이 단순히 물질이라면 지난 시간에 범한 죄를 지금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적 동일성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경체계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물질적인 구조가 7년마다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 7년전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순수하게 물질적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현재의 사람은 동일 인이 아니다. 하지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 인간은 시간이 흘러도 인격적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정신세계가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인간이 단순히 세포로만 이루어진 생물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로봇 이상의 존재이다. 만약 인간이 물질일 뿐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선택도 유전적인 뇌의 화학 작용 작용에 불과할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일정한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인간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작용의 산물이 아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 산물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정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가 행한 것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책임게 된다. 보상과 처벌을 받게 된다. 인간은 존재하는 때 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과 이어진다는 것이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 논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그를 믿는 자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신체적 외상이 매우 심각했고, 죽음이 확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러 번 그분의 부활 이후 몸을 만져 보았고, 한 명 이 아니라 500여명에 이르는 목격자가 있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이 최소 만 명이 넘게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시작되었다. 수천년동안 지켜 온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전통을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리스도는 부활로 인하여 흔히 말하는 성인들의 반열에 서 계신 아니라 유일하신 분임을 나타냈고 죽음 이후에 삶이 존재함을 입증해 주었다.

나눔식 소그룹 로마서 6:8~14(9월 15일 본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하나님 찬양하기 *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새 433)

Focus :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은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로마서 6:8~14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당시 로마 사회에는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세속적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사치와 쾌락주의가 성행했고, 성적 문란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으며,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문화와 수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죄'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에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바울의 말(5:20)을 듣고, 일부러 죄를 더 지으면 은혜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반박하며,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 계심을 언급하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했나요?(10~11절)

적용과 나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과거의 잘못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나요?

2. 관찰과 묵상

바울은 우리 지체를 무엇에 비유했으며, 어떤 대상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했나요?(13절)

적용과 나눔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삶과 공동체에 어떤 변화 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 속에서 사는 죄인에게는 사망이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재가를 만드시 처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무력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성도는 죄에 대해 죽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지체와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손으로 입술로 축복하며, 저의 전 존재가 복음을 전하는 의의 도구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지나친 경쟁,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저성장 시대 진입 등의 요인으로 좌절과 무기력,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도록 기도합니다.

2.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가 '조력 자살'을 범제화했습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막아서도록 기도합니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주님의 시간에

Diane Ball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뤄져
리 기다려 - 하루 하루 살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이 풀때까지 기다려 -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